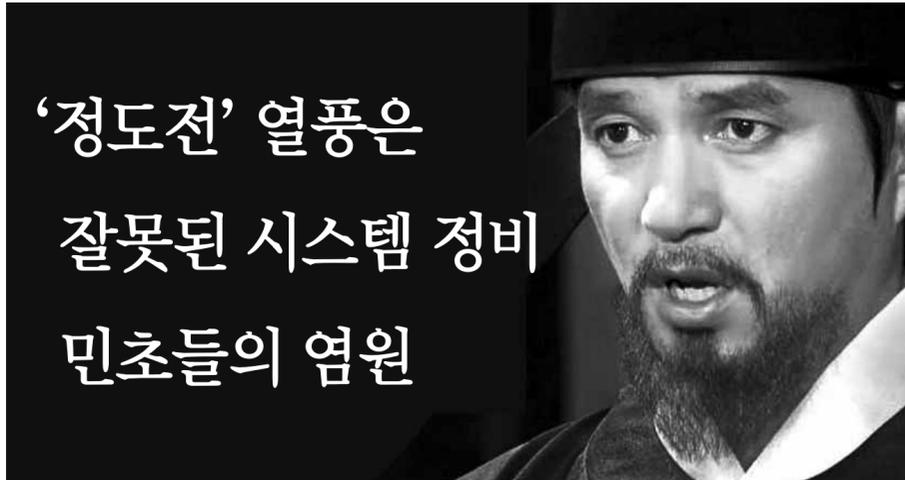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⑤:40 웰컴 투 시월드(재) 50 집나간 가족	00 KBS 뉴스광장	0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하이라이트	10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VS 알제리)	③:00 브라질 2014 (대한민국 VS 알제리) 50 브라질 2014 가자! 16장으로
⑦	50 야간극장	50 여기는 포르투갈 (미국 VS 포르투갈)		
⑧ 00 새 시도지사에게 듣는다 15 코모닝 A	25 아침마당		00 2014 브라질 월드컵 (미국 VS 포르투갈)	
⑨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수금의 땅) 4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 15 2014 브라질 월드컵 하이라이트 올라! 브라질	00 브라질 2014 특집 모닝와이드
⑩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제조사(재)	30 여유만만	45 기본 좋은 날	30 브라질 2014 미국·포르투갈 하이라이트
⑪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바른말 고운말	45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아레나	55 꿀! 꿀! 꿀!	
⑫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5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뮤직뱅크 인 브라질	00 MBC 정오 뉴스 20 2014 브라질 월드컵 하이라이트 올라! 브라질	00 SBS12뉴스 30 브라질 2014 하이라이트
① 30 뉴스 특급	00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VS 알제리)		20 문화사색	
② 40 직인직설		50 브라질 월드컵 특집 국제공공제작 컬러스 오브 풋볼	10 한국사 탐	00 SBS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③ 5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유로링 동물탐정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뉴스 05 키즈 CSI 과학수사대 35 헬로키즈 숲속마을 뽕뽕뽕	10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④ 40 캐도나마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 체조(재)	25 꾸러기 캐럴스 코리아 55 영화가 좋다(재)	25 퓌! 퓌! 퓌! 55 꿀! 꿀! 꿀!	00 매일연가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스페셜
⑤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브라질월드컵 특집 MBC이브닝 뉴스	00 SBS 슈퍼라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⑥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등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첫회)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라따라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⑧ 20 백일섭의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투아웃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뉴스 30 KBC 8 뉴스 45 브라질 2014 월드컵페스타
⑨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00 생활의 달인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긴급출동 24시	00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첫회)	00 월화 드라마 (트로트연애)	00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
⑪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더 라인	15 브라질 2014 특집 SNS 원정대 일단 띄워
⑫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부부극장 공작(재)	30 TV, 책을 보다 ①:10 T 타임 40 알약특독	30 여기는 브라질 (네덜란드 VS 칠레)	15 MBC 뉴스24 30 2014 브라질 월드컵 (호주 VS 스페인)	25 브라질 2014 (네덜란드 VS 칠레)



주말 사극 '정도전' 주인공 조재현

결말은 익히 잘 알고 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손에 죽는다. 그런데도 시청자는 그 바뀔 수 없는 결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KBS 1TV 대하사극 '정도전'의 힘이다. 종영까지 이제 단 2회 남았다.

정도전을 연기하는 조재현(49·사진)을 최근 인터뷰했다. "결과적으로 정도전은 망심한 거예요. 이방원이 자신을 향해 칼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이진)의 존재가 너무 크니까 감히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로 여긴 겁니다. 그런 이방원한테 당했으니 망심한 거죠."

드라마 '정도전'은 꺼져가던 정통사극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며 안방극장에 반가운 기운을 불어넣은 수작이다. 방영도중 드라마에서 정작 정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지적은 오히려 반대로 조재현이라는 배역에 배우가 정도전을 안정적으로 연기 해줬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이 살 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논란이 있었던 것을 왜 모르겠나"며 웃은 조재현은 "하지만 우리 드라마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만족한다. 조미료를 안 넣어도 맛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박수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극 중 정도전은 많은 어록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회자가 되는 말 중 하나는 "임금의 소임은 듣는 것, 참는 것, 품는 것 일이다."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정도전이 보여준 모습은 대부분 신실하고 어진 충신의 모습이였다.

조재현은 정도전에 대해 "절대로 사리사욕은 없었던 인물"이라고 단언했다.

"정도전은 폭군과 선군의 출현에 따라 나라가 어찌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정치는 그 시절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로 왕이 혼자서 할 수 없고 특별한 재상들이 정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여겼거든요. 그것을 이

방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요. 정도전은 개인적으로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조선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때문에 조선 개국 6년차에 이방원의 손에 죽게 되죠."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것이며, 사리사욕 없는 마음도 남의 눈에는 다르게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정도전은 명나라에서도 살생부에 올랐다.

조재현은 드라마 '정도전' 열풍에 대해 "시청률 이상의 뜨거운 관심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문경 드라마 세트장에 40~50대들만 모여들었어요. 주말이면 '정도전'이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뛰어들어가던 중년의 아저씨들만 우리 촬영팀에 관심을 가졌죠.(웃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대, 10대까지도 관심을 갖고 세트장에 오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차가웠는데 지금은 확연하게 달란 분위기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드라마에서 그리는 여말선초의 모습이 지금의 시대상과 비슷한 점도 드라마 인기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요즘 1970~80년대보다 더 살기 힘든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우리에게도 지금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잘못된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조재현은 "대중문화는 다양해야하는데 최근 드라마를 보면 특히 지상파 드라마에는 다양함이 부족했다"며 "드라마 '정도전'은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매우 건강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가족이 함께 보면서 국가의식과 철학을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지 서로 생각해봐 줬다"면서 "드라마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 장백산 생수 모델 논란에 계약해지 요청

전지현·김수현 소송사 "원산지 표기 확인 못해 죄송"

한류스타 전지현과 김수현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를 타고 중국에서 잇달아 광고모델로 발탁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못지 않게 '동북공정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이 확대되자 김수현에 이어 전지현 측도 이미 촬영까지 마친 광고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제의 광고는 중국 헝다그룹이 세계 생수시장 공략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백두산(중국명 장백산·長白山) 광천수 헝다방환(恒大冰泉)의 광고다. 전지현과 김수현은 최근 이 광고의 촬영을 각각 중국과 국내에서 마쳤다. 특히 전지현이 중국에서 촬영한 광고는 세계적인 감독 헝카이이가 연출했다.

생수가 난데없이 '동북공정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헝다방환 생수병에 원산지 표기가 백두산의 중국명인 '장백산(長白山)'으로 된 것을 일부에서 문제 삼으면서다.

문제를 삼는 쪽에서는 장백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표적인 한류스타들이 이에 이용했다정 주장하고 나섰다.

전지현과 김수현 측은 생각지도 못한 논란에 당황하면서도 동북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대응에 부심했고 "원산지 표기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수현 측은 결국 광고모델 계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지현 측도 뒤이어 중국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어찌 됐든 원산지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불찰이고 논란이 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헝다그룹 측에 오늘 저녁 정식으로 광고모델 계약 해지 요청을 했다.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키이스트는 "위약금과 광고 촬영 비용 등 수십 억원의 손해가 일 지 같다"며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수현이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해지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키이스트도 계약해지 요청을 했지만 이미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 경우 에 따라서는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현과 김수현의 이번 광고 모델 계약금은 업계 최고 대우인 1년 계약에 10억 원으로 알려졌다. 광고 제작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현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원산지 표기까지 확인하지 못한 건 소속사의 실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아이전시를 통해 헝다그룹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지현(오른쪽)과 김수현

이어 "하지만 계약해지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며, 헝다그룹 측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여론 악화로 광고모델 계약해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현지에서 판매되는 생수의 원산지 표기가 현지 표기로 된 것이 문제가 돼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한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백두산 생수 역시 현지 취수원 표기는 '장백산'이라고 돼 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쪽 중에서는 중국이 백두산을 한자로 장백산이라 표기한 것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고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옛 왕조시대부터 해오던 일인데 이를 동북공정에 연결짓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14:15 시계마을 디기톡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5:40 나의 성공비결	〈가족을 위한 식단〉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10 EBS 특강	14:45 미연미아로봇	19:30 EBS뉴스
07:00 놀이터 구조대, 봉인(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50 대한민국 화해프로젝트 〈용서〉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시청자와 떠나는 세계테마기행〉	15:30 제로니모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뽀롱뽀롱 보로로(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속디 라오! 라오!〉
08:00 당동명 유치원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30 한국기행 〈상곡기행〉
08:20 두다다(재)	13:05 지식채널e	16:30 놀이터 구조대, 봉인	21:50 EBS 다큐프라임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6:45 콧다와 친구들(재)	〈인간탐구 욕망 황금〉
08:50 곰피와 친구들	13:20 와글와글 친구들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달라졌어요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2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3:45 치료와 친구들	17:30 뽀롱뽀롱 보로로	24:05 지식채널e(재)
09:35 뽀뽀	14:00 헬로 코코롱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12:15 수능특강 〈수학 I A형〉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 〈수학 II〉
02:30 " 〈수학 I〉	14:00 " 〈국어 A형〉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암출탐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9:10 " 〈수학 I〉(재)	21:00 " 〈수학 A형〉(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해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EBS플러스 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 〈국어 5-1〉
07:30 나의 성공비결	16:40 " 〈국어 6-1〉
08:0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17:20 만명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1〉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7:50 EBS 특별기획 〈성폭력 예방 프로젝트〉
09:50 " 〈수학 1(상)〉	18:40 TV 중학 〈역사 1〉
10:30 " 〈역사 1〉	19:20 배움 플러스 〈수학 2(상)〉
11:10 " 〈국어 ③④〉	19:30 중학 과학 자유탐구 〈수학 1(상)〉
11:50 " 〈수학 2(상)〉	20:00 중학중간-기말 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 1-1〉
12:30 등업산공 〈수학 2(상)〉	20:40 " 〈과학 1-1〉
13:10 " 〈과학 2(상)〉	21:20 " 〈과학 2-1〉
13:50 " 〈수학 2(상)〉(재)	21:20 " 〈국어 1-1〉
14:30 " 〈수학 2(상)〉(재)	22:00 " 〈국어 4-1〉
15:20 만점왕	
15:40 " 〈국어 4-1〉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중급)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음 5월 26일 乙丑)

子	36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48년생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60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72년생 생소해 보일 수도 있다. 84년생 타계 책이 수립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3, 15	午	42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져 애를 먹겠다. 54년생 소신대로 행한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66년생 속명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난이 뒤따른다. 78년생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89, 38
丑	37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느니라. 49년생 인연은 따로 있느니라. 61년생 나중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73년생 생상대가 번덕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85년생 함께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행운의 숫자 : 04, 54	未	43년생 어느 누구에게나 아예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55년생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판나겠다. 67년생 풍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79년생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39, 94
寅	38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 질 수도 있다. 50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내버려 두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리라. 74년생 진화력과 자연스러움이 절실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62, 30	申	44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새어나가는 모습이다. 56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68년생 도약 하고 있는 단계이니 조금만 더 힘써 보라. 80년생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니 즐겁게 맞이하자. 행운의 숫자 : 75, 10
卯	39년생 외부적인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51년생 지출은 투자가 될 것이니 아까워하지 말라. 63년생 강력한 기세로 임정하게 되풀이 되다가 사라지리라. 75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67, 83	酉	45년생 어림잡아서 행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 57년생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69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가상이 실제의 상황으로 전개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1, 22
辰	40년생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없어서 말문이 콧 막힐 것이다. 52년생 자제하면 덕이 되리라. 64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76년생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이니 모두 챙겨 두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84, 46	戌	46년생 그치지 힘들이지 않고 차차하게 된다. 58년생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70년생 못 물어 반듯해야 모를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이치이다. 82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23, 76
巳	41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리라. 53년생 아무런 이상 없이 온전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5년생 대신 시키는 것이 훨씬 유연하리라. 77년생 알면서도 회피한다면 곤란해진다. 행운의 숫자 : 47, 68	亥	47년생 실행 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기치하다. 59년생 주변에 제 이익만 꾀하려는 이가 보인다. 71년생 상부상조해 나간다면 당해내지 못할 바가 없다. 83년생 본래타미 양호하니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90, 61